

“세계 최고 기술력 자신... 韓 OPC 사명감 갖고 살아남을 것”

(유기 감광제)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신만순 케이알 오피씨 대표

대한민국, 아니 세계 최고의 OPC 드럼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이 의기투합했다.

한때 증권시장에 상장까지 하며 국내 OPC 드럼 시장을 호령했다 우여곡절 끝에 문을 닫은 백산OPC(한프)에서 기술개발, 생산, 품질관리, 영업 등 각자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이들이 모여 새로운 회사를 차리면서다.

케이알 오피씨(KR OPC)와 신만순 대표가 주인공이다.

사명속 KR은 ‘코리아(KOREA)’의 약자로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OPC 회사를 지향하며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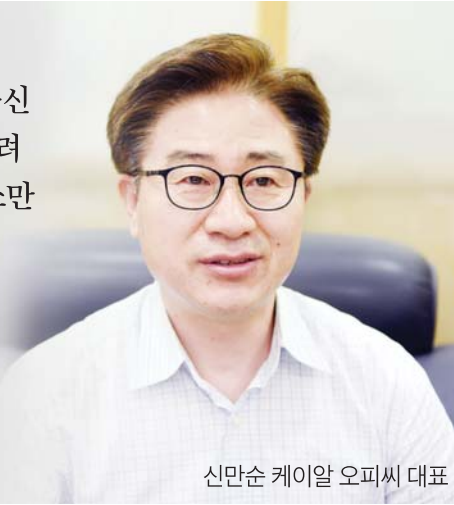
옛 동료들을 규합해 2018년 6월 KR OPC를 설립하고 회사를 이끌고 있는 신만순 대표는 백산OPC에서 청춘을 보내고 총괄본부장과 부사장까지 거친 인물이다. 당시 회사에서 독일, 영국 등 유럽시장을 총괄하기도 했다.

백산OPC는 한때 글로벌 OPC 드럼 시장에서 3위를 차지하던 회사다.

“전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연구소장,

문 닫은 글로벌 회사 백산OPC 출신 동료들과 의기투합해 새 회사 차려 6년 방치된 공장 4개월 동안 청소만

수출길 열리는 찰나 코로나 터져 올해는 숨통 트였지만 운영 한계 설비만 갖춰지면 당장 양산 가능



신만순 케이알 오피씨 대표

생산부장, 품질부장 등과 함께 앞서 경매로 받아놓은 경기 평택의 공장을 손봐 재가동을 준비해 첫 가동하던 그날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 신 대표가 당시를 회상했다.

6년 넘게 방치되었던 공장을 탈바꿈 시키기까지 적지 않은 공이 들었다. 공장에서 4개월 내내 청소만 했다. 찌든 때를 벗기고, 못쓰게 된 물건 등을 버리는데 트럭 몇 대를 써야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땀은 가시질 않았다.

문 닫은 회사를 나왔다는 동질감도 있었지만, 쓴 맛을 본 동료들과 새로운 곳에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보자는 의지가 더욱 강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다 신 대표와 동료들은 재가동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고 OPC 드럼을 본격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때가 2019년 3월 18일이다. 첫 제품이 나오고 열흘 뒤에는 첫 수출도 했다.

‘OPC(Organic Photo Conductor) 드럼’은 레이저 프린터에서 토너의 잉크 성분을 밀착시켜주는 롤러 형태로 생긴 핵심 부품이다. 특히 유기 감광제를 알루미늄 튜브에 코팅하는 작업은 매우 정밀하고 민감해 완벽한 크린룸 설비를 갖춰야한다. 일반 프린터가 레이저 프린터로 바뀌고 이를 활용한 복합기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OPC 드럼 시장은 또다른 핵심부품인 카트리지와 함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완제품(OEM) 시장

을 제외한 OPC 드럼을 재생해 쓰는 애프터마켓(AfterMarket)만 전 세계적으로 약 3조원대에 달한다. 캐논, HP, 리코, 후지제록스 등에 OEM으로 OPC 드럼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사용한 드럼을 재생해 시장에 판매하는 형태다.

KR OPC는 당장은 애프터마켓에서 강자가 되고, 궁극적으로 내노라하는 글로벌 기업들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첫 수출은 중국으로 했다. 3만개가 나갔다. 일본에서도 주문이 들어왔다. 일본은 샘플만 오가며 검증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다. 그러다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유럽,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으로 수출도 시작했다.”

애프터마켓에서 나오는 재생드럼을 잘 쓰지 않는 국내의 경우 OPC 드럼 시장은 한 달에 고작 3만개 정도다. KR OPC의 현재 월 생산 능력은 3000개에서 4000개 수준. 기존 2개의 생산라인을 하나 더 늘리면 생산량은 더 늘어난다.

국내에서 소비가 안되다보니 결국 해외시장을 뚫어야 먹고 살 수 있다. 신 대표와 KR OPC가 제품 생산 초기부터 해외시장을 공격적으로 노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초 갑자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닥

다. 전 세계를 발로 누비며 영업을 해도 모자를 판에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주요 홍보·마케팅 수단이었던 해외전시회도 모두 취소되면서 기술력을 뽐낼 수 있는 길까지 막혔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인도에선 선수급까지 주며 물량을 주문했는데 결국 컨테이너를 가져가지 못했다.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도 했지만 일부 직원은 휴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창밖만 보면 눈물이 나오더라.” 신 대표가 인터뷰 중간에 잠깐 울컥했다.

그레도 올해 상황은 지난해보다 나아졌다. 수출도 다소 늘고, SNS 등을 통해 해외 바이어들과 소통도 꾸준히 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공장을 가동하고, 인건비를 주고, 제품을 개발해야 할 운영비 걱정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제품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세계 최고인 일본의 캐논, 후지, 미쯔비시 등에 버금가는 기술 수준을 이미 확보했다. 설비만 갖추면 당장 양산도 가능하다. KR OPC가 성공하지 못하면 한국에 (글로벌 기업과 견줄) OPC 회사는 없다.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분명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진공, 中企 물류해소에 1000억 추가 투입

수출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완화... 최대 3억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0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추가로 마련해 물류비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경영여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나섰다.

5일 중진공에 따르면 지속되는 물류수급 차질로 인해 해운·항공 운임이 크게 상승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중소기업 등에게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

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에 따른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 확보했다.

중진공은 물류비 상승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최근 1년 내 직접 수출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최근 6개월 이내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업과 국제물류주선업 영위기업으로 확대했다.

물류비 상승으로 중소기업에 발생 가능한 피해 등을 고려, 매출액 또는 영업

이익이 10%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여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도 완화했다. 지원금액은 최대 3억원까지다.

정책자금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국 32개 중진공 지역본부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도 이사장은 “선제적 유동성 공급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수출 경쟁력 회복을 중진공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1억클럽에 감사 선물

1575명에 영화티켓 2매씩 증정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데이’(매년 9월5일)를 맞아 노란우산에 10년 이상 가입한 기업 중 총 납입액 1억원 이상인 고객(1억 클럽)을 대상으로 영화티켓 증정 이벤트를 연다.

5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를 통해 올 7월말 기준 ‘1억 클럽’에 해당되는 총 1575명에게 영화티켓 2매씩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지난 2007년 출범해 14주년을 맞이한 노란우산은 앞으로 더 확장될 1억 클럽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자금심 고취와 장기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1억 클럽의 분포를 보면 수도권이 50.5%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경상권이 26.4%, 충청권이 11.1%, 호남권이 9.4%, 강원권이 2.3%, 제주도는 0.4%를 차지했다.

코웨이, 사내 인플루언서 본격 육성

코웨이가 ‘사내 인플루언서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부터 내부 인플루언서 발굴 및 육성에 본격 나선다.

5일 코웨이에 따르면 사내 인플루언서 프로젝트는 코웨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내 쇼호스트’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한다.

코웨이는 지난 상반기에 프로젝트에

지원한 사내 직원들 중 전달력, 진행력, 기획력, 창의성 등 4가지 평가 기준에 부합한 인재 12명을 ‘사내 쇼호스트 1기’로 최종 선발했다.

또한 코웨이는 사내 인플루언서 프로젝트에 선발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방송 진행 스킬, 제품 스피치 등의 쇼호스트 전문 교육 과정을 제공했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사내 쇼호스트 1기로 선발된 인원들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코웨이

깨끗한나라 생분해 가능 ‘올그린 물티슈’ 출시

깨끗한나라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생분해가 가능한 100% 레이온 원단을 사용한 ‘깨끗한나라 올그린 물티슈(사진)’를 출시했다.

5일 깨끗한나라에 따르면 100% 레이온 원단은 식물에서 유래한 원사로만 만들어져 환경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면보다 더욱 부드러운 사용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원단에 사용된 원사는 유럽 바이오플라스틱협회 산하 벨기에 인증기관인 ‘VINCOTTE’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업계 최초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해 플라스틱 사용을 50% 저감한 친환경 물티슈 캡을 적용했으며 물티슈 포장재에도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는 녹색기술로 만든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했다. /김승호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지난해 가정폭력 20% ↑ ...데이트폭력, 71%가 폭행상해 /유토이미지
▲ “엄마, 비빔 좀 알려줘” 중장년층 겨냥하는 사기문자 급증

▲ 정부 “확진자 3주째 감소...접종 완료자 추가 혜택 검토”
▲ 오늘부터 국민지원금 지급... “국민지원금” 알리서비스로 확인하세요



▲ 백신 1차 접종 3000만명... 추석 전 3600만명 ‘파란불’
▲ 이번주 ‘지진안전주간’... “탁자 밑·계단·넓고 높은 곳, 기억하세요” /유토이미지